

# 나주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 열린다... 에너지 전략 논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학연 전문가 참여, 미래 에너지 전략 모색한다 인공태양 연구 기반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전남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아), 신정훈 국회의원, KENTECH 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미래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초연설,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산학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차세대 전력망과 인공태양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나주시는 이날 개회식에서는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과학고등학교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황정아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그간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과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보성군,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망제산' 맨발 산책길 산림관광 자원화

보성군은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27일 보성을 망제산 일원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 이용이 활발한 맨발 산책길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망제산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식재 적지를 직접 선정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목련, 곱해당화, 황목련, 춘추뽕 등 총 600주의 수목이 식재됐다.

군은 이번 식재를 통해 사계절 꽃경관을 갖춘 '명품 꽃길 산책로' 조성 속도를 내고, 맨발 걷기와 연계한 건강·힐링 공간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홍보, 목재 이용 활성화,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해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썼다.

'망제산'은 현충탑을 기점으로 약 2.6km 구간의 맨발 산책길이 조성된 생활밀착형 녹지 공간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 공간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을 일원의 미세먼지 차단 숲(2.1km)과 관주소 맨발산책길(3.6km), 벌교읍 부용산 산책길(5.7km, 2026년 완공 예정) 등 생활권 중심 녹색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망제산 맨발 산책길이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이자 보성을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산림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 강진군, 희망꾸러미로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복지 실현

강진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생필품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희망꾸러미'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읍면 복지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이장, 복지기동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행정 중심의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된 다양한 복지 수요는 긴급지원, 사례관리, 통합돌봄,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희망꾸러미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복지 실천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희망꾸러미'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화순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추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 원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7일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스마트 기술기 보급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웨이팅보드 등 매장 내 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부가세·관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

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총 13개소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061-373-707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대응해 본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무안군, 농번기 농기계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조기출근·토요근무 시행, 청계 남부분소 개소로 이용 편의 확대

무안군(군수 김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 증진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번기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조기출근제를 시행한다. 또한 농기계 수요가 집중되는 6월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근무를 실시해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침 시간대 임대 수요 분산을 위해 임대 전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농기계를 미리 출고할 수 있는 '사전출고 제도' 운영한다.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왕복 1만 원의 농기계 운반서비스와 영농현장 긴급출동 서비스도 연

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 3월 청계면 일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새롭게 개소함에 따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 체제로 확대 운영되며, 지역 간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 탄력 운영과 청계 남부분소 개소를 통해 농기계 임대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순천시, '여성농업인 이동건강검진' 시행 병원 중심 검진에서 '현장 방문형'으로 확대... 검진 사각지대 해소

순천시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여성농업인 이동건강검진 서비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으로, 올해는 기존 병원 중심 검진 방식에 더해 현장 방문형 이동검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이동검진 차량 2대와 전문 의료인력 10명이 투입되어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총 5개 항목 특수검진과 전문의 건강상담을 함께 제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 중 만 51세부터 80세까지의 읍·면 지역 여성농업

인 약 2,900명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생활권 내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형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농촌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동건강검진은 1일 별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일 해룡면, 3일 서면에서 진행되며, 6일에는 황전면과 월등면, 7일 승주읍과 상사면, 8일 낙안면과 외서면에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9일 주암 보건진료소와 송광면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질 것. 몇 장이나 될까. 색감처럼. 반드시 기억할 것.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풍성한 인생을 강하게 하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언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젠가 우연히.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